

수도권 콘텐츠기업 잇따라 광주行...90개 일자리 창출

오아시스스튜디오·루이웍스미디어 협약 '광주콘텐츠허브'에 본사·자회사 설립 민선 8기 들어 기업 17곳 속속 광주로

광주시가 수도권 문화콘텐츠기업 유치에 잇따라 성공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17개 콘텐츠기업이 광주에 둠지를 틀었고 올해에만 다섯 번째 유치 성과다.

광주시는 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시각특수효과(VFX) 전문기업 ㈜오아시스스튜디오, 글로벌 예능 제작사 ㈜루이웍스미디어와 투자진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2개 기업은 전일빌딩2455층에 있는 광주콘텐츠허브에 본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총 90명의 지역 인재를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청년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3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오아시스스튜디오, ㈜루이웍스미디어와 투자진흥지구 유치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해당 기업들에게 행정 지원은 물론 세제·입지 특전(인센티브), 문화콘텐츠 기반시설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유치는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활용한 콘텐츠기업 유치 전략의 성과로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산업 기반 강화에 기여하며 광주가 콘텐츠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아시스스튜디오는 2022년 설립된 시각특수효과(VFX) 전문기업으로 디즈니+ '커넥트', 넷플릭스 '종이의 집 Part 2', JTBC '나쁜 엄마'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 주목받은 VFX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6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루이웍스미디어는 '피지컬: 100',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등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끈 예능 콘텐츠를 제작해온 기획·제작 전문기업으로 본사를 광주로 이전하고 30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광주콘텐츠허브에 유치된 ㈜유모드는 70명의 지역 인재를 채용했다. 이번 협약을 포함하면 총 160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광주시는 GCC사관학교 운영을 통해 실무형 콘텐츠 인재를 양성하고, 투자진흥지구의 혜택을 결합해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콘텐츠 인프라, 전문인력, 정책 지원의 3박자를 모두 갖춘 도시"라며 "이번 유치 기업들이 광주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주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광주 문화경제부시장에 김현성 대표 내정

디지털경제 전문가·기업 등 경험 다

광주시는 3일 "문화경제부시장에 김현성 (재)광주경제진흥상생발전재단 대표이사(사진)를 내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현성 내정자는 서울시 디지털보좌관,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한 디지털경제 전문가다. 중소기업과 유통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김 내정자는 광주경제진흥상생발전재단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배달의민족 독립선언'을 통해 소상공인 전용 공공배달앱 활성

화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업을 이끌었다. 광주시는 김 내정자가 골목상권 주변도로 야간주차 허용, 전통시장과 공공기관 1:1 매칭 지원 등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시정 방향에 맞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회복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및 정책방향 설계에 참여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주연구원장으로 재직할 때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함께

호흡을 맞추는 등 김 총리의 측근 인사로 알려져 있다.

또 민생경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탄탄한 정책 네트워크도 갖춰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 등 광주시정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책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시는 김현성 문화경제부시장 내정자에 대한 자격 심사와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AI총괄정책자문관(CAIO)과 빅데이터총괄정책자문관(CDO)을 신설하고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와 나명한 전남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를 각각 위촉했다. /기수희기자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윤범모 前 국립현대미술관장 추천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후보로 윤범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사진)을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회에 추천했다.

윤 후보자는 한국 근대미술의 거장들을 발굴·조명한 근대미술사학자이자 평론가, 기획자다. 198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에 당선돼 평단에 얼굴을 알렸으며 이후 미술비평가로 40여년간 활동했다. 가천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명예석좌교수,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초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

윤 후보자는 1985년 광주비엔날레 창립 당시 특별전 기획자로 광주비엔날레와 첫 인연을 맺었으며 2014년 특별전 전시감독을 맡아 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미술평론·미술사학·미술행정 전반에서 전문 역량을 갖춰 세계 5대 비엔날레로 꼽히는 광주

비엔날레의 새로운 전기를 이끌 책임자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윤 후보자는 국립현대미술관장 재임 동안 한국미술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 교류 전시 기획 및 협업 사업 등을 추진했다.

문화중심도시 광주시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등 3대 국립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에도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범모 후보자는 향후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기수희기자

폭염 취약자 맞춤형 대책 '시민 건강 보호'

폭염저감시설 785개·무더위쉼터 1천593곳

온열질환 감시 강화...예측 가능 재난 차단

광주시는 3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특보에 대응해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신체·사회·직업·경제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15개 유형의 폭염 민감대상자를 지정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집중보호에 나섰다.

먼저 신체적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기저질환자에게는 생활지원사를 통한 1일 건강 확인과 냉방용품이 지원되며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영유아·임산부·고독사 위

험자·군 복무자 등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안부확인 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한다.

농업인·외국인근로자·건설노동자·폐지수집자 등 직업적 민감대상에게는 폭염 예방키트와 '안전쉼터 쿠폰' 등을 제공하고 드론을 활용한 예찰과 축산·공사현장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또 폐지 수집 어르신을 위한 '자원재생활동단'도 8월 한 달간 운영해 대체 일자리와 폭염 보호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노숙인·폭발주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냉방용품, 응급쉼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그늘막, 쿨링포그(물안개 분사장치) 등 폭염 저감시설 785개, 무더위쉼터 1천593개를 운영 중이며 냉방비와 살수차 운영비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수희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람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광주역앞 중흥6거리코너(중흥동712-14외2) 대형빌딩 상업지628평 지하4층지상10층 건평344평 연건평3,778평 승강기3대 주차150대 급매220억(조정가능) 공공기관, 의료시설, 쇼핑센터 등 무수 업종이던 좋은 위치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만약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내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가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